

TV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50 굿모닝! 채널A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박중진의 쾌도난마(재)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사랑했나봐>	05 KBC 뉴스지금 30 모닝와이드 3부
8 50 김부장의 경제특급	25 아침이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활속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너라서 좋아>
9 50 신문으로 보는 세상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사랑아 사랑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40 웰컴 투 시월드(재)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세상(재)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50 채널A 뉴스	00 러브 인 아시아(재) 55 바른말 고운말	10 KBS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재) 50 퀴즈쇼 사총사(재)	00 주말연속극 <아들 녀석들>(재)	00 SBS생활경제 40 KBC생활뉴스
12 10 펍키(재)? 4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00 KBS 뉴스12	50 디큐멘터리 3일(재)	00 MBC 정오뉴스 20 우리가รัก 우리문화	00 SBS 12 뉴스 30 테마스페셜
1 50 박상규의 대선 스타일	00 KBS결정선 <영광의 재인>(재)	50 내 생애 마지막 오디션(재)	20 MBC 스포츠 2012 MBC 탁구최강전 2차대회	30 벤자민의 맛있는 여행(재)
2 50 이연경의 세상만사	00 KBS뉴스 10 제17회 상생화배 월드버라이어티스 준결승 <제3주>	0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재) 30 KBS 뉴스타임 35 딸기가 좋아(재)	00 MBC 3시 경제뉴스 10 똑똑 아저씨	00 SBS뉴스 10 간질클리닉(재)
3 50 이연경의 대선 만사				10 인문학열전
4 50 박중진의 쾌도난마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네트워크 특선 <필통-광주>	00 파워마크(재) 30 TV 유치원	00 얼음이 마법사(재) 30 아웅다웅 동화나라	00 스킨2 30 푸르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도그라피	00 상상천구 꾸메꾸메(재) 30 문화기행 세계의유신(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30 생활속 투데이 1~2부
6 00 스포츠 베토벤 20 이영돈 PD의 막걸리 X파일(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통 1~2부	20 생활속 전국시대	
7 30 한양스캔들(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45 일일시트콤 <덕치고 패밀리>	15 일일연속극 <그대없이 못살아> 55 MBC 뉴스데스크	20 일일드라마 <그대도 당신>
8 40 생활속 오픈 스튜디오(재)	25 일일연속극 <힘내요 미스터김>	2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 50 의뢰인 K	50 불만제로 UP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40 날씨와 생활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50 뉴스A	00 KBS 뉴스9		55 수목미니시리즈 <보고싶다>	55 SBS 대기행 <대풍수>
10	00 역사스페셜 50 아름다운 사람들	00 수목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11 00 웰컴 투 시월드	00 KBS 뉴스라인 40 현창로동 동행	20 해피 투게더	15 부부위기극복프로젝트 <남과 함께>	15 스타부부쇼 자기가
12 10 박중진의 쾌도난마(재) ①:20 판관 모창전 2012	30 KBS 뉴스 40 콘서트 필드 ①:30 KBS결정선 디큐멘터리 <대한민국을 움직인 사람들-백범 김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①:00 세상의 모든 디큐	30 MBC 뉴스24 ①:00 MBC프리임	35 SBS 시사토론

'아이유 트위터 사진' SNS 사생활 침해 논란

진실보다 스토리 주목 순식간에 번져 공적인 공간 충분히 인지하고 올려야

가수 아이유의 트위터 사진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SNS의 폐해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불거진 '아이유 사진 논란'은 SNS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발단은 아이유가 지난 10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슈퍼주니어 은혁과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이 사진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자 아이유의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즉각 보도 자료를 내 "해당 사진은 은혁이 올려준 아이유의 병문안을 와 찍은 것이며, 두 사람은 친한 선후배 사이일뿐"이라며 "아이유가 실수로 사진을 올린 것이니 두 사람 사이에 대한 확대 해석이나 추측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일부 누리꾼들이 두 사람의 차림새, 사진 속 표정 등을 볼 때 "병문안 사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이들은 '아이유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아이진유)'란 이름의 온라인 카페(소모임)까지 만들어 '열애설'을 뒷받침할 만한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하며 아이유 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맞서 "아이유를 믿자"는 누리꾼들도 행동에 나섰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

의 참견이 지나치다는 것. 이들은 '아이진유'에 맞서 '아이유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아믿사)' 카페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SNS로 논란에 휘말린 연예인은 아이유 말고도 많다. 지난달 초에는 가수 김장훈이 미투데이(me2day)에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린 데 이어 가수 싸이를 겨냥한 비난을 쏟아내 파문이 일었다. 8월에는 그룹 티아라가 트위터 글로 홍역을 치렀다. SNS는 사·공간의 제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특히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에게 더욱 유용하다. '강남스타일'로 '글로벌 스타'가 된 싸이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이유나 티아라의 사태에서 보듯 SNS는 스타의 인기와 명예를 위협하는 '홍기'로 돌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예인들이 "가장 사적인 매체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매체"인 SNS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은 연예인들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소소한 문제라도 하나 불거지면 SNS를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가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는 '진실'보다 대중이 추가한



<아이유>

스토리가 더 주목받게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유나 티아라 모두 억울한 측면이 있었지만 '진실'만을 믿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파문을 확대시킬 수 있다. 대중에게 진실만큼 '정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SNS에 글을 올릴 때는 공적인 공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혹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대중 정서'까지 감안해 전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BS		
06:00 극한 직업	<낯선 사람과 믿을 안하는 아이>	14:45 영어유치원 요 기버기바
06:30 미래 직업, 또는 직업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10 고양이 파피
07:00 몬스터 수확나라	<김은경의 기운솟는 보통날의 음식 - 우렁콩고기국배기과 시금치사과샐러드>	15:35 몬스터 수확나라(재)
07:30 꼬마 캣 피규어	11:20 세계대미기행 <전설의 섬 가나리아 제도 4부>	16:00 땀방울 유치원1~3(재)
07:45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정오 뉴스	16:30 클로이의 오솔웃장(재)
08:00 똥똥 똥똥 똥똥	12:10 TV 입학사정관	16:45 출추는 꿈, 꿈아(재)
08:30 출추는 꿈 꿈아	13:00 EBS 다크 프리즘 <중앙아시아의 스위스 키르기스스탄>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4:00 지식채널e	17:10 치료의 클래식 동요(재)
09:10 치료의 클래식 동요	14:05 함께하는 한국어	17:15 꼬마버스 타요(재)
09:15 개미	14:35 손 우릴리 사전 1~2	17:30 달려라 카키(재)
09:30 달려라 카키		17:45 뽕똥똥 뽕똥(재)
09:45 클로이의 오솔웃장		18:00 생활속 특목 보너스 1~4
10:00 부모		18:50 곤
		19:05 마텔도사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2012 학교시험대비 <수학(하)>	13:00 고1 벵키기 특강 <도덕>	07:00 청소년 상담사 시험 대비 강좌	15:20 초등 기말 학업성취도 대비특강 <과학 3-2>
00:50 고1 벵키기 특강 <과학>	13:50 2012 수능 특강 5분 시뮬(1)	07:30 EBSe 생활영어	<과학 3-2>
01:40 2013 대 수능 해설 <생물II>	14:00 EBS 소스 <고교 Vocabulary>	08:00 9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과학 4-2>
03:00 <화학II>	14:50 2012 수능 특강 5분 시뮬(2)	08:30 독학사 교육강좌	<과학 5-2>
04:20 <세계사>	15:00 고2 벵키기 특강 <중국어>	09:05 배움 너머	<과학 6-2>
05:40 <중국어>	<미적분과 통계기분(1)>	09:10 EBS TV 중1 <수학1-1>	17:20 초등개념 잡기(사회)
06:40 2012 탐스런 <차량의 물리 I>	16:00 <미적분과 통계기분(2)>	09:50 <도덕1-2>	18:00 중학 예비반(사회)
07:30 2012 기초논술 <읽기의 왕>	17:00 <미적분과 통계기분(3)>	10:30 EBS TV 중2 <수학2-2>	18:40 중학 개념 끝장내기 <사회>
08:20 고2 벵키기 특강 <화학 I>	18:00 2014 대비 수능출제 매뉴얼 <영어 A형>	11:10 <도덕2-2>	19:20 EBS TV 중1 <수학1-2>(재)
09:10 <생활과 윤리>	19:00 <수학 A형>	11:50 EBS TV 중3 <수학3-2>	20:00 중학 개념 끝장내기 <수학>
10:00 <한국지리>	20:00 <영어 A형>	12:30 <과학3-2>	20:40 <역사>
10:50 2014 대비 수능 출제 매뉴얼 <최대선의 역사>	21:00 고1 수능 맛보기 <이러함의 수학>	13:20 친절한 수학 익힘책이 6~2(재)	21:20 중급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1)
11:40 <박복의 일반사회>	22:00 <내신과 다른 수능 언어 기초원리>	13:50 중학 예비반 <수학>	22:00 중급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2)
12:30 박복의 이슈로 만드는 경제	23:00 연중기획 <폭력없는 학교>	14:30 중학 예비반 <영어>	22:40 EBS 중3퍼펙트 체크업 <과학>
		15:10 발명의 광광	23:20 EBS 중2 퍼펙트 체크업 <수학>

知天命이 모든 운세		11월 15일(음 10월 2일 庚辰)
子	36년생 자세히 보면 의외의 것이 눈에 띈다. 48년생 본능을 제어하면서 차분히 행하라. 60년생 자체 내에서 해결책을 찾게 된다. 72년생 상대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하자. 84년생 가족사시킬 수 있는 호기롭다. 행운의 숫자 : 92, 11	42년생 사소한 이해관계에 집착하다 보면 큰일을 못 본다. 54년생 천 냥 빛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느니라. 66년생 가까운 데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78년생 내용이 충실해야 빛을 보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2, 13
丑	37년생 급하게 참여할 필요는 없다. 49년생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일이다. 61년생 생기발랄한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73년생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지켜야 한다. 85년생 길성이 비추면서 흥이 절로 나겠다. 행운의 숫자 : 84, 76	43년생 편협하다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 55년생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풀리게 되리라. 67년생 방법의 사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79년생 진실된 삶 속에서 평안함이 깃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6, 21
寅	38년생 1차적으로는 무난하겠지만 그 다음이 문제롭다. 50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쉽게 보면 큰일난다. 62년생 돈은 들어오나 쓸 곳이 바로 생긴다. 74년생 사전에 대비를 잘 해줘야 차질이 없겠다. 행운의 숫자 : 06, 33	44년생 상태가 불량하니 정비해라. 56년생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68년생 비우면 곧 채워질 것이요 집착하면 곧 사라질 것이다. 80년생 보이더라도 못 본 체하는 것이 수편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5, 48
卯	39년생 최소한에 그쳤을 때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높다. 51년생 머지않아 유과가 드러날 것이니라. 63년생 성장을 기약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리라. 75년생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후회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0, 09	45년생 목격하는 바와 동떨어져 있다면 무의미하다. 57년생 확실히이라면 주관적 편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69년생 한계를 느끼거든 즉시 선회하는 것이 좋다. 81년생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 행운의 숫자 : 80, 64
辰	40년생 문제점이 보이니 잘 찾아내야만 한다. 52년생 관리가 철저했을 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64년생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날로 새로워 질 것이다. 76년생 통일된 시각과 진중함이 형세를 굳히리라. 행운의 숫자 : 44, 56	46년생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리라. 58년생 성질을 급하게 쓴다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70년생 타의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행하면 그만이다. 82년생 충분한 예측 가능하므로 대비하고 있으면 무탈하리라. 행운의 숫자 : 72, 29
巳	41년생 비로소 객관성을 획득하게 된다. 53년생 파상적인 현상이 일 수 있으나 무시하는 것이 좋다. 65년생 사고의 전환만 한다면 여러 가지 길이 보일 것이다. 77년생 위태로운 상황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68, 17	47년생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59년생 느슨해진다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다. 71년생 자신의 길만 가고 있으면 된다. 83년생 실제까지 않다면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0, 9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원! ☎010-9790-8237

굿모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니하오 풍구위	오하오우 니혼고
I wasn't born yesterday 전 바보가 아니거든요	白雲孤飛(백운고비) 흰 백, 구름 운, 외로울 고, 날 비	第三者 disānzhě 숨겨 놓은 애인	こちらでコートをお召ください。 여기에서 코트를 입으시지요
A : That will be two hundred dollars, sir. B : Do you take me for a fool? The bill should be eighty. A : You're really a sharp businessman. B : I wasn't born yesterday. A : When I first met you, you wasn't like a baby in the woods. A : 손님, 그러면 200달러가 되겠습니까. B : 절 바보 취급하세요? 계산서에는 80달러로 나와 있어요. A : 정말 명석한 사업가이시군요. B : 전 바보가 아니거든요. A : 손님을 처음 보았을 때, 바보같지가 않으셨습니까. * take for = (1) ~로 잘못 알다, ~라고 생각하다 : (2) (드물게) ~을 편들다, ~을 지지하다. * 그들은 내 얘기를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 They took my story for a lie.	백운고비(白雲孤飛)란 '흰 구름이 홀로 떠나간다.'는 뜻으로, 타향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를 생각한다는 말이다. 당나라 초, 태원이라는 곳에 적인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당나라 고종과 측천무후 시대의 유명한 대신으로서 여러 관직을 거쳤다. 그는 후에는 재상이 되었다. 적인걸은 젊었을 때, 병주에서 범조 장군을 지낸 적이 있었는데, 당시 그의 부모는 하양에 있었다. 정주와 하양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부모를 만나 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적인걸은 늘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적인걸은 태원산에 올랐다가, 문득 눈길에 부모가 있는 하양 쪽을 향하여 돌아보니, 흰 구름만 쓸쓸하게 떠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함께 갔던 사람들에게 괴로운 듯 말을 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저 흰 구름의 아래에 계십니다." 적인걸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표정으로 그곳을 바라볼 뿐이었다. [출전 『신당서(新唐書)』(적인걸전(狄仁杰傳))]	연관있는 당사자 외의 사람을 가리킬 때 제삼자(第三者)라는 말을 씁니다. '第三者'가 중국어에서는 쌍방의 다른 사람이라는 본래 뜻 말고도 '부부관계 외에 연인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라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중국이 1980년 개혁개방 이후 혼인관련 법률용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第三者'를 줄여 '小三'이라고도 하며, '外遇 wài yù'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간혹 '小三'을 갖고 있는 것이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밝혀지지 않는 골방에서의 일이지, 광장으로 옮겨간 '小三'의 존재는 가정보고 인생이고 끝장나는 것이지요.	A : では、そういうことで。 B : はい。よろしくお願いたします。 A : 外は寒いですよ。こちらでコートをお召ください。 B :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では、失礼して着せていただきます。 A :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B : 네, 잘 부탁 드립니다. A : 밖은 춥습니다. 여기서 코트를 입으시지요. B : 고맙습니다. 그럼, 실례되지만 입도록 하겠습니다. * では、そういうことで 거래를 종료할 때 사용하는 말 '거래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지요'라는 의미가 있다 * こちらで 'ここで(여기에서)' * お召ください '着てください(입으세요)'의 경어 * 着せていただきます '着ます(입겠습니다)'의 경어 '~させていただけます'의 형태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아스카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 http://www.kjasuka.co.kr ☎ 232-1503